

정치를 확 바꿔서, 경제를 살립니다!

허구한 날 패거리 정치 싸움에 지긋지긋하시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끊으셨지요?

혼란스런 우리 사회, 그러나 원인을 찾아보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성공했으나, 양 김의 분열로 지역대결구도가 심화된 탓입니다.

이제, 지역싸움 그만두고, 지역통합 민주정권을 세우면

혼란스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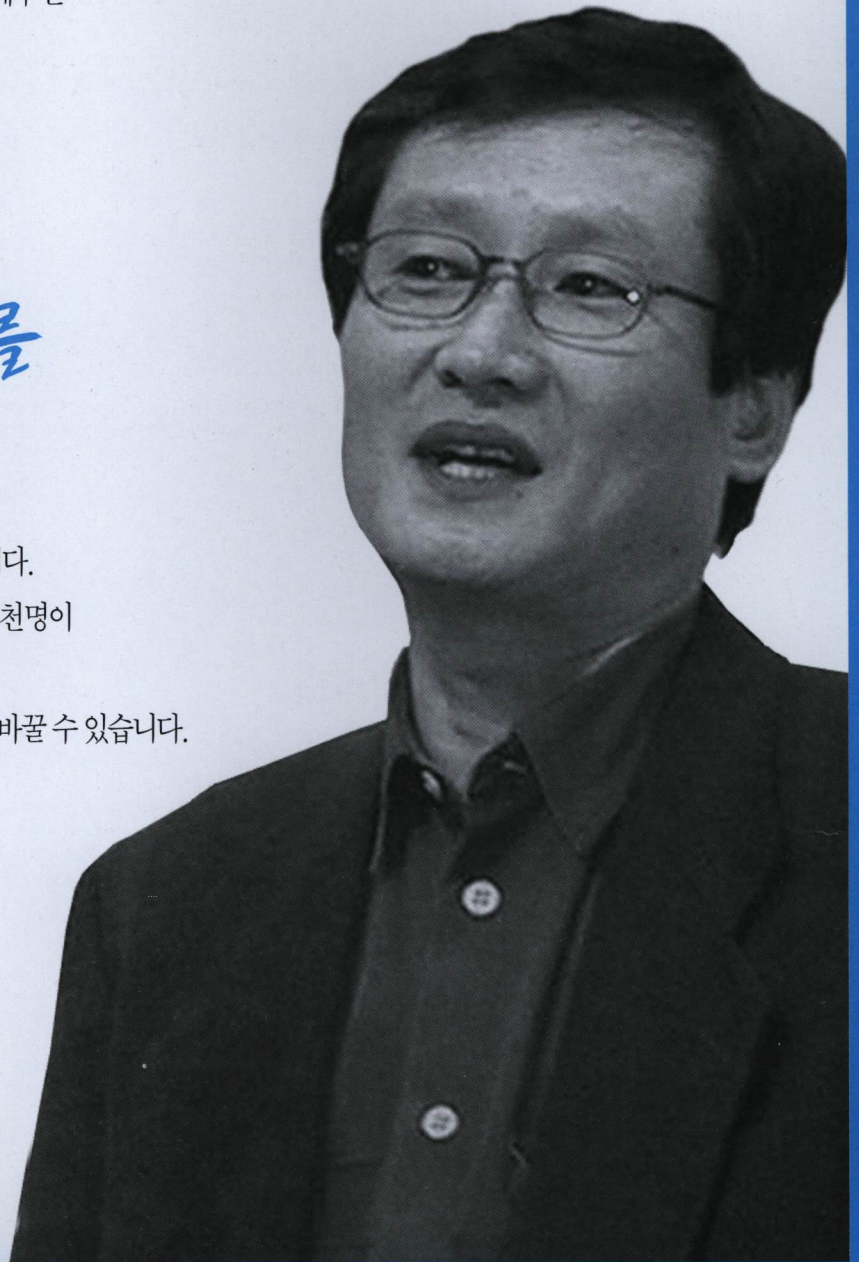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뽑는다!

민주당이 개국 이래 최대 정치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7만명 중 3만5천명이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지역구도에 발목 잡힌 정치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www.nosamo.org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804호 TEL 02-783-4180~4, FAX 02-783-6582
(전화나 FAX, 인터넷으로 가입의사를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절차를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3428

뭐야!

정치인을 사랑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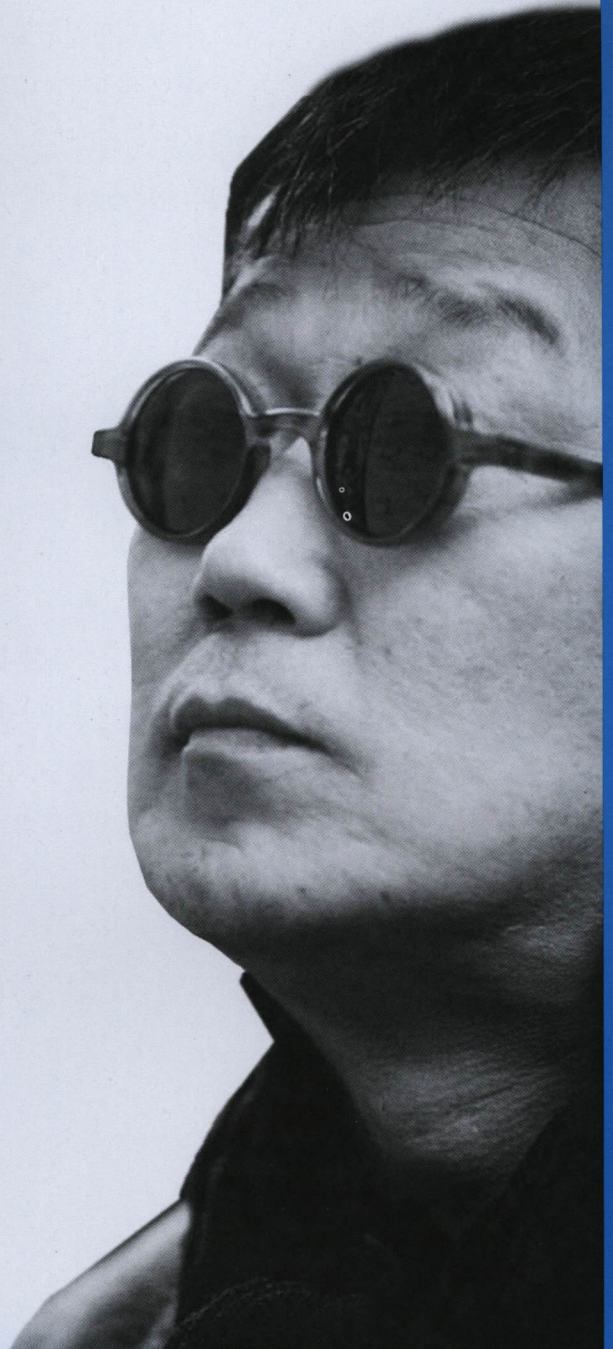
이놈 저놈 다 나쁘다고 말하는 언론인, 교수가 있다면
일단 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는 다 똑같다. 차라리 과거 독재시절이 더 낫다 고
은밀하게 선동하는 수구기득권 세력일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을 욕하기만 해서는 이 땅의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인을 찾아서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최루가스 속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외치던 정치인,
지역화합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해온 정치인,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달걀세레도 겁내지 않은 정치인,
부도덕한 언론에 아부하기보다는 용감하게 맞서는 정치인,
그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
벌써 8,613명(2월 5일 현재)이 가입했습니다.

이 사랑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이 나서면 당신의 희망은 현실이 됩니다.



www.nosamo.org

Tel : 02-783-4180~4 / e-mail: samu@nosamo.org